



# 한국틴스타

2014년 9월  
제39호

www.teenstar.or.kr



김혜정

한국틴스타 교사양성팀장 / 제6차 워크숍 수료

제8차 국제 틴스타 회의는 즐거운 머뭇, 풍성한 나눔, 의미있는 통찰, 동기부여와 격려, 그리고 우리는 한 지구촌 가족이라는 주최국의 바람을 담고 독일 Bernried에서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렸다.

오랜 친구와 새로운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갑다는 한나 클라우스 수녀님(전 국제틴스타 대표, 미국)의 정정한 인사에 비로소 국제틴스타 회의에 도착했음을 실감했던 첫 날, 독일의 어느 한 회의장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것은 물론 주최국의 따뜻한 환대가 그 이유였겠으나 이제는 어엿하게 국제틴스타 로고 자리를 잡은 한국의 오색별(☼)이 반짝거리며 우리를 반겼기 때문이라.

8년전 크로아티아에서 있었던 국제회의에서 배 마리진 수녀님(현 착한목자수녀회 동북아시아 관구장)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던 한국의 오색별을 이제는 16개국에서 모인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으니 정겨움과 더불어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한나 클라우스 수녀님의 뒤를 이은 필라 비질(현 국제틴스타

대표, 칠레)의 본격적인 역할에서 과거와 현재가 맞닿아 함께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틴스타를 느끼며 회의의 첫날을 열었다.

그리고 차츰 회의장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까지도 눈에 담을 수 있는 여유로 둘째 날이 열렸고 첫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가별 보고는 둘째 날까지 계속 이어졌다.

아직은 혼자 애쓰고 있는 멕시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중인 오스트리아와 국가간 파트너십을 발휘해 부교재 개발에 힘쓰고 있는 독일과 스위스, 대표에 변화가 있었던 프랑스, 경제적 원조가 절실한 에티오피아...이들의 상황을 접하며 한국틴스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길을 보게 된다.

한국틴스타는 변수운 바울라 수녀님(현 한국틴스타 대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진단에 관한 내용까지도 담아 역동적인 활동보고를 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독일, 이태리, 멕시코, 필리핀, 한국, 스페인, 스위스, 우간다, 미국의

순으로 이어진 활동 보고를 통해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서 틴스타 역시 서로 주력하고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다가가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활동보고를 통해 좀 더 어린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보완하려는 움직임과 시대에 맞게 접근하고자 부교재 개발에 힘쓰는 노력을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다. 잘 되어가고 있는 곳엔 기쁨의 박수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엔 응원의 박수를 보내던 우리는 이미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틴스타 가족이었다.

국제틴스타 회의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을 말하라 한다면 난 주저 없이 가족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참가자들을 꼽고 싶다. 이미 틴스타의 그 역사가 20년이 된 곳에서의 생식력 자각을 핵심으로 살고 있는 틴스타 가족의 자연스런 모습일 것이라 생각해본다. 그렇게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더 많은 교사와 가족이 모이며 회의의 셋째 날은 엮어졌다.

“The Story Every Cycle is Telling Us”란 주제로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또 호르몬과 호르몬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었던 필라 비질의 연극처럼 진행된 강의는 생식력 자각을 통해 자신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한나 클라우스 수녀님의 틴스타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흐름 안에 함께 했던 고마운 인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개받을 수 있었음도 뜻 깊은 기회였다. 한나 클라우스 수녀님을

말씀하신다. 틴스타를 통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일이라고.....

그리고 이어진 도미니쿠스 주교님(부주교, 쾰른)의 〈인간 본질과 사랑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강의는 왜 틴스타가 하느님의 일로써 널리 퍼져 나가야 하는지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그는 “한 사람은 지성과 의지와 마음을 지닌 몸과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 자체로 이미 존재 이유가 있으니 더 이상 그의 존재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남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다.’(독일 헌법 제 1조항)에도 표현되었듯이 그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역설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틴스타를 통해 사랑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참가자를 배려한 관광과 저녁 만찬은 주최국의 환대를 느끼고 즐기기에 손색이 없었다. 한국의 많은 교사들이 함께해 우리가 틴스타를 하는 이유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는 시간이었다.

이제 연세 드셨음을 숨길 수 없는 한나 클라우스 수녀님을 배웅하는 엘리자베스 패살(현 독일 대표)의 그칠 줄 모르는 눈물과 함께 안아주며 그 애뜻한 맘을 주고 받았던 마지막 날.....

국제틴스타와 한국틴스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를 넘어선 헌신으로 서로에게 충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 틴스타의 카리스마

- 틴스타란? -

한나 클라우스 수녀 / 하민 번역

틴스타는 청소년이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적 측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이 드러내는 진실을 통한 자기 발견의 고유한 프로그램으로써 틴스타는 참가자로 하여금 표면적인 이해 뿐 아니라 관계와 헌신에 대한 총체적인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세 개의 큰 맥락으로는 생식력 자각, 개별면담(모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용 포함), 부모의 참여가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과 십대 한부모를 위한 종교적 교육과정과 비종교적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십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틴스타는 정결을 지키려는 이들과 정결한 삶으로 돌아오려는 이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틴스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젊은이들이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신체적 문제를 접하지 않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의 성행위를 가질때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또는 영적 문제들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체적으로는 성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에는 아직 더 성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 관계를 맺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성소(결혼과 가정, 독신의 삶, 특별한 종교적 성소)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적 측면에서 골고루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어른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즉흥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좁혀 버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는 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반대 입장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의기소침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이들을 사랑스럽게 대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느리다고 생각되어도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에 맡겨드릴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이미 이 일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아직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처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 국제틴스타대회에서의 발표문 중 일부 게재

# 8<sup>th</sup> International TeenSTAR Congress

7. 31 ~ 8. 04, 2014



국제 모임이 열렸던  
St.Martin 피정센터-Bernried, 독일



국제 틴스타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독일 틴스타의 현수막



“오랜 친구와,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이 반갑습니다.”  
- 한나수녀님



현 국제틴스타 대표 Dr.필라의 개회사



국가별 활동 보고의 시작  
- Dr.필라



다른 참가국들의 응원과 지대한 관심을 받은  
한국 틴스타



더 많은 독일 교사와 오스트리아 교사의 합류로  
한층 고조된 강연 분위기



생식력 자각을 통해 호르몬 이상과  
질환의 발견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발표 - Dr. 필라



작업으로 풀어본 자연 출산 조절과 인공 피임의 비교 - 엘리자베스 (독일 대표)



한국 팀과 함께한  
미국, 필리핀, 우간다, 독일 참가자들



2016년 제9차 국제모임을 기약하며...  
다함께 활짝! ^^



## 생각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

조상일

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 1학년

TeenSTAR? 틴스타?

처음에 뭘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수업은 성교육이었다. 성교육은 중, 고등학교에서 이미 받았었고, 항상 그렇듯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너무 이상적인 내용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와서 딱히 쓸모없고 시간낭비인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나로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 그리고 성교육을 여성과 함께 듣는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다. 또한 첫 번째 수업을 들으면서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올거라 짐작하지 못했다.

첫 시간에 받은 틴스타의 상징이 그려져 있는 배지엔 별의 각 꼭지점마다 SPIRITUAL, INTELLECTUAL, SOCIAL, PHYSICAL, EMOTIONAL 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그 의미를 자세히 배워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은 생리주기표, 남성은 감정주기표를 받았는데 오히려 여성의 생리주기표는 익숙했지만 감정주기표는 남성들도 자신의 감정과 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뭔가 보통의 성교육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그렇게 다른 느낌으로 출발한 수업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수업을 못 들었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틴스타 수업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성에 대한 소중함을 머리에 입력시키는 지식만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다. 조원들끼리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거나 남녀를 떠나 우리가 생각하던 음지에 있던 어두운 면의 성이 아닌 '성' 그 자체로 성(聖)스러운 성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과 서로의 성을 존중할 수 있게 변화해 갔다.

조원들끼리 나는 얘기를 발표하면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업시간에 나는 이야기를 가족이나 틴스타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나눌 때 할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틴스타 수업 덕분에 더욱 확장된 관계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SPIRITUAL, INTELLECTUAL, SOCIAL, PHYSICAL, EMOTIONAL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성과 관련이 있을까 많은 의문이 더 생기기도 했다. 수업을 듣고 나서도 이 다섯 가지의 이해와 우리에게 꼭 필

요한 것, 우리 주위와 분명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울림이 그리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공피임에 대해 토론발표를 준비하고 다섯 가지의 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직접 조사하면서 크게 와 닿았다.

인공피임... 솔직히 나는 인공피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틴스타 이전의 성교육 시간에는 인공피임을 사용하라고 교육을 받았었다. 하지만 “인공피임은 사용해야 한다?!”의 주제에서 반대의 주장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했는데 처음의 나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말은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려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틴스타의 상징인 별의 양 끝에 있는 SPIRITUAL, INTELLECTUAL, SOCIAL, PHYSICAL, EMOTIONAL 에 관련지어 틀을 짜고 자료를 모으기로 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니 더욱 수월했고 더 쉽게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이해 되지 않았던 틴스타의 다섯 가지 면도 나에게 와 닿았다. 조사를 하던 중 가톨릭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가톨릭신문에는 왜 인공피임을 하면 정말 안 되는지 인공피임이 어떤 영향과 결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실려 있었다.

처음 인공피임에 대해 찬성이었던 내 생각이 싹 바뀌었다. 그리고 조사했던 자료를 이용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물론 인공피임에 찬성이었던 팀의 준비도 어느 정도 인공피임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다. 틴스타의 다섯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더 포괄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인공피임에 대해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토론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생겼다. 무교였던 내 종교관에 천주교(가톨릭)가 스며들었고 틴스타 교수님과 천주교에 대해 나의 생각을 말할 기회가 있었고 교목신부님과 연결이 되어 교리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 사업은 비종교적이어서 하나 간호사는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간호사는 환자와 소통하며 자신의 업무를 잘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가톨릭 교리를 배우며 그 말의 뜻을 이해해 갔다. 천주교, 즉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환자와의 소통과 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환자에게 힘을 주고 보살피 주어야 하는 직업으로써 내 힘든 삶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분이 필요 한 것이다.

틴스타 수업! 특히 토론발표를 통해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와 관념의 변화를 체험했다.

마지막으로 아직 틴스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았다고 해도 관심이 생기지 않아 듣지 못했던 분들에게 틴스타는 인생에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전하고 싶다.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엇보다 힘들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가까이 있으니 그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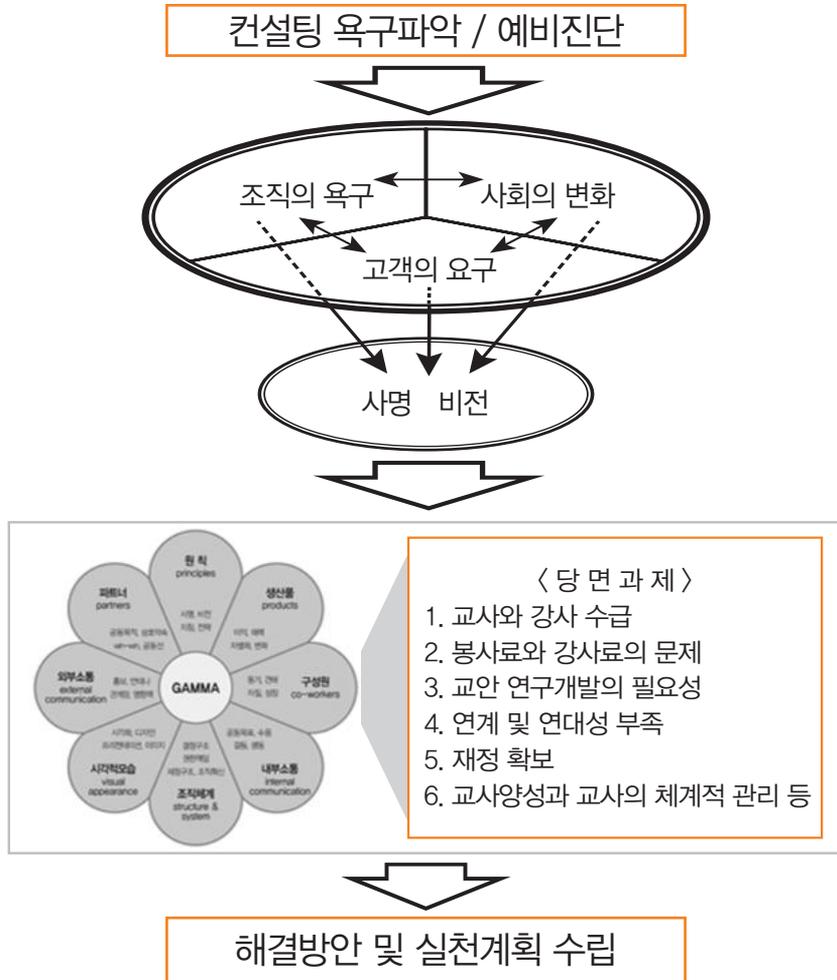
※틴스타 프로그램 ‘총체적인 성’ 수업 참가 후기

# 한국티스타 행사 및 소식

☆ 한국티스타는 2013년 프로그램 한국도입 1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총체적인 조직의 진단과 컨설팅을 위해 한국감마센터와 함께 지난 6월 12일부터 전체 8회기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5일(토)~16일(일)에 있을 2014년 전국교사모임에서 전체교사들과의 워크숍으로 마무리 되는 이 여정은 한국티스타의 사명과 비전을 재확인하고 2015년부터 실행에 옮길 예정이며 아래의 도표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결방안 및 실천계획수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참여를 바란다.



☆ 지난 8월 21일, 파키스탄의 틴스타 교사인 Pervez Roderick씨는 AYD에 참가한 파키스탄의 4명의 청년대표들과 함께 한국틴스타 본부를 방문했다. 한나수녀님의 권유로 찾아 온 그는 아시아 청소년 사목자 회의(AYMM)에서 초대된 Workshop진행자로서 8월20일 대전 정하상 바오로 회관에서 “Preparing Youth for Family Life”의 주제로 주교회의의 시노드 정신에 따른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인간생명” 회칙과 “몸의 신학”, 그리고 자연출산조절(빌링스 방법)과 틴스타에 바탕을 둔 내용을 다루었고 25명의 주교, 신부, 청년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 ☆ 한국틴스타 2014년 전국교사 모임안내

그 동안 한국틴스타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틴스타 교사로서 새롭게 재충전 할 수 있는 한국틴스타 전국교사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대상 : 한국틴스타 지도자과정 워크숍 이수자
- 일정 : 2014년 11월 15일(토) 오후 2시부터~ 16일(일) 오후 5시까지
- 장소 : 서울 유스호스텔(남산)
- 접수기간 : 10월 20일(월) ~ 11월 3일(월) (당일 접수불가)  
www.teenstar.or.kr 알림란에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kteenstar@hanmail.net)로 접수 바람.
- 참 가 비 : 40,000원 (우리은행 1005-500-998645 예금주: 한국틴스타)

### 광주

8월 9일(토) 광주지역 틴스타 교사들은 ‘틴스타 프로그램을 위한 열린 준비’라는 타이틀로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광주교구 틴스타 김동하 지도신부의 ‘틴스타 프로그램 안의 몸의 신학’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엔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김혜자 교수를 초청해서 ‘생식생리’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자 교수와의 만남은 교사들의 요청으로 9월 13일(토)에 다시 초청해서 ‘임신과 출산’ ‘가족계획과 성인성질환’ 등을 공부할 계획이다.

### 대구

112차 워크숍을 마치고 세팀의 심화반을 진행 했고 대구틴스타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총체적인 성(12회기)이 진행 중이다.

# 종료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종료일
학교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고)A반, B반	강미숙 선생	2014. 6.20
		대성여자고등학교(고)A	김은경 선생	2014. 6.18
		대성여자고등학교(고)B		2014. 6.20
		대성여자고등학교(고)A	박경단 선생	2014. 6.17
		대성여자고등학교(고)B		2014. 6.19
		대성여자고등학교(고)A	박현화 선생	2014. 6.16
		대성여자고등학교(고)B		2014. 6.17
		대성여자고등학교(고)C		2014. 6.20
		대성여자고등학교(고)	이명호 선생	2014. 6.19
	대성여자고등학교(고)A반, B반	이유미 선생	2014. 6.17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총)	백민주 선생	2014. 6.10
	대구가톨릭대학교(총)A반, B반	김정숙 선생	2014. 6.10	
	대구가톨릭대학교(총)A반, B반	이승현 선생	2014. 6.18	
	대전	대전가톨릭신학대학교(총)	하정용 신부, 조정옥 선생	2014. 5.29
	부산	부산가톨릭대학교(총)A반, B반	김혜정 선생	2014. 5.30
	서울	무학중학교(중)A반, B반	김길환 선생	2014. 7. 9
		무학중학교(중)A반, B반	김영숙 선생	2014. 7. 3
		무학중학교(중)A반, B반	이연복 선생	2014. 7. 3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강정애 선생	2014. 6.27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박경숙 선생	2014. 6.27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이필숙 선생	2014. 6.27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임복규 선생	2014. 6.27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주설령 선생	2014. 6.27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한명례 선생	2014. 6.27
		휘경여자중학교(중)A반, B반	김길환 선생	2014. 6.23
		휘경여자중학교(중)A반, B반	박진경 선생	2014. 6.23
		충남	대전여자고등학교(고)	권선희 선생
	종교 단체	광주	광주대교구 진월동 성당(고)	박하영 선생
			신동일 선생	2014. 6.22
광주대교구 진월동 성당(중)			김은경 선생	2014. 6.22
			오성환 선생	2014. 6.22
광주대교구 진월동 성당(총)			박경단 선생	2014. 6.22
			김금남 선생	2014. 6.22
하남동 성당(고)			김동하 신부	2014. 6.22
하남동 성당(중)			김지현 선생	2014. 6.22
		문현숙 선생	2014. 6.22	
		김영환 선생	2014. 6.22	
대구		문덕 성당(중)	엄선희 선생	2014. 7.12
		선산 성당(중)	이일현 선생	2014. 6.21
		선산 성당(총)	권소영 선생	2014. 6.21
			이영숙 선생	2014. 5.31
		장성 성당(중)	서성진 선생	2014. 7. 6
서울		서울대교구 일원동 성당(총)	박인영 선생	2014. 7. 6
		성가소비녀회(총)	변수운 수녀	2014. 6.11
		한국순교복자수녀회(총)	박성은 수녀	2104. 6.29
인천		연수동 성당(총)	박진경 선생	2014. 5.28
			손문희 선생	2014. 3.25
	법박동 성당(총)	이병주 선생	2014. 3.25	
	조정옥 선생	2014. 5.13		

# 종료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종료일
종교 단체	인천	송도국제도시 성당(중)	조정욱, 김기환 선생	2014. 6.25
			변경미 선생	2014. 6.28
			김희옥 선생	2014. 6.28
기관	대전	청소년 심자리(중)	박소영 선생	2014. 4.11
		관악구 교육네트워크(총)	김혜정 선생	2014. 7.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총)	변수운 수녀	2014. 7. 4
		유프라시아의 집(고)	김혜선 수녀	2014. 7. 4
		마음자리 화곡동 미혼모위탁시설(산)	김혜정 선생	2014. 7.12
	인천	작전도서관(고)	박진경 선생	2014. 8.28
			황윤정 선생	2014. 7.19
제주	이시들지역 수도자(총)	김은지 수녀	2014. 5.30	
기타	대구	구수산도서관(총)	오경애 선생	2014. 8. 8
	인천	선민지역아동센터(고)	김성연, 이병주 선생	2014. 7.25

# 진행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작일
학교	경북	근화여자고등학교(고)	전수영 선생	2014. 4.19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총)	박광훈 신부	2014. 3.15
	대구	대건고등학교(고)	김성범 선생	2014. 4.18
		경산여자중학교(중)	전수영 선생	2014. 5.26
			홍경희 선생	2014. 5.26
	서울	서울대학교 대신학교(총)	김동렬 수사	2014. 3.22
		난우중학교(중)	이필숙 선생	2014. 9. 1
		휘경여자중학교(중)	이병주 선생	2014. 9. 2
	광주	살레시오여자중학교(중)	조영선 선생	2014. 9. 2
			박현화 선생	2014. 8.29
			이명효 선생	2014. 8.29
			강미숙 선생	2014. 8.29
			이유미 선생	2014. 8.29
			박경단 선생	2014. 8.19
			박하영 선생	2014. 8.21
			박하영 선생	2014. 8.19
			박하영 선생	2014. 8.20
			박현화 선생	2014. 8.20
			박현화 선생	2014. 8.21
			장현옥 선생	2014. 8.20
서울	무학중학교(중)A반, B반	김해은 선생	2014. 8.20	
		김해은 선생	2014. 8.21	
		김시라 선생	2014. 8.21	
		손숙희 선생	2014. 8.21	
서울	무학중학교(중)A반, B반	김길환 선생	2014. 8.27	
		김영숙 선생	2014. 8.28	
		정유리 선생	2014. 8.28	
종교 단체	서울	예수수도회(총)	김수경 수녀	2014. 4. 9
		가재울 성당(총)A반, B반	이필숙 선생	2014. 7.15
		가재울 성당(총)A반, B반	이필숙 선생	2014. 7.19
수원	성북동 성당(중)	권기연 선생	2014. 6. 1	
		김시내 선생	2014. 6. 1	
인천	연수동 성당(중)	손문희, 김기환 선생	2014. 1.11	
제주	생명의 샘(총)	김은지 수녀	2014. 2.27	
기관	광주	무지개 지역아동센터(중)	박현화 선생	2014. 8.14
		함계할 새누리지역아동센터(고)	박경단 선생	2014. 9. 2
	인천	선민아이들세상 & 하늘씨앗(중)	이병주 선생	2014. 9. 4



## 알/림/방

### ☆ 2014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종료 현황

#### 제112차 대구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대구지부
- 기간 : 6월14일(토)~15일(일), 21일(토)~22일(일)
- 장소 : 대구대교구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 제113차 서울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간 : 6월31일(월) ~ 7월 3일(목)
- 장소 : 노동사목회관(보문동)

### ☆ 2014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진행 현황

#### 제114차 인천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인천교구 생명사랑운동본부, 청소년사목국
- 기간 : 9월13일(토)~14일(일), 20일(토)~21일(일)
- 장소 :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 제115차 마산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천주교마산교구 가정사목국
- 기간 : 11월 1일(토)~2일(일), 8일(토)~9일(일)
- 장소 : 천주교마산교구청

### ☆ 한국틴스타와 착한목자수녀회가 함께하는 화해 피정 안내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착한목자수녀회
- 대상 :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선착순 8명, 당일 접수 안 됨)
- 일정 : 월 1회 개최 (2박 3일) 첫째 날 오후 3시~ 마지막 날 오후 1시30분
- 날짜 : 10월 31일(금)~ 11월 2일(일), 11월 25일(화)~ 27일(목)
- 장소 : 경기도 가평 성 빈센트 환경마을
- 참가비 : 한국틴스타에서 전액 후원
- 문의 및 접수 : (02)755-2629, 010-7440-8687



###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 국민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 신한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021-644868
- 외환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14년 9월 1일

발행처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길 80번지 가톨릭회관 603호

전 화 : 02)755-2629

발 행 인 : 변수운 바울라 수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anmail.net

팩 스 : 02)727-2243